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교회의 노인복지 증진방안

\* 남희은 \*\*전운출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

## I. 들어가며

### II. 장기요양보험과 교회의 노인복지

#### 1. 장기요양보험제도

#### 2. 교회의 노인복지

### III.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교회 노인복지 증진방안

#### 1.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 실태

#### 2.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의 발전방안

## IV. 맺으며

## I. 들어가며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10년 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8).<sup>1)</sup> 고령화 현상은 노인인구의 양적증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빈도는 점차 높아져 노인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장기요양보호라는 최대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공적요양보험 체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아 정부도 6년만의 준비 끝에 2006년 2월 노인수발보험법을 통과시키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1) UN 고령화 사회의 분류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14% 미만인 사회

-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4%상~20% 미만인 사회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20%이상인 사회

보험 제도 실시로 국가의 4대 보험 외의 보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때 교회가 고령화 사회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에 함께 해야 한다. 교회내의 노인대학과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각각의 노력들이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성 질환 노인들의 대상 까지 그 폭을 확대하여 접근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경 마태복음 5장 13-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로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때 건강하게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초기 한국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기 한국교회는 멸망으로 치닫는 비참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도 활동과 아울러 사회와 국가를 섬기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소외된 그룹에 관심을 갖고 하급계층과 서민층, 여성이 그 중점 대상이었고, 농민들에게는 복음과 함께 농촌 개발사업 등을 전개하여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인식 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사업, 문화사업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영향이 안 미친 곳이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서서히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교회와 사회는 동반관계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존재할 때에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전도의 한 방법으로 사회봉사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의 현실에 노인복지를 위해 교회의 역할을 찾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본 연구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교회차원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성화하여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노인복지에 참여할 것인가를 연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는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로 노인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서 교회가 전도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이들 센터들이 어떻게 지역복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 파견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할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현재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기관들을 통하여 운영 실태와 제도 시행의 문제점, 제도 시행의 한계 및 장·단점, 발전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하는 교회의 목사님 5명을 대상으로 하여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운영상의 구체적인 한계와 어려움 발전을 위한 방안모색 등의 깊이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회의 노인복지의 방향을 모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장기요양보험과 교회의 노인복지

### 1.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개념은 각 국가의 재정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현재까지도 '장기간병', '수발', '장기요양보호'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는 "노인요양보험", 국회에 2006년 2월 제출한 정부안에서는 "노인수발보험"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2007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명칭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도권에서는 '노인장기요양'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이광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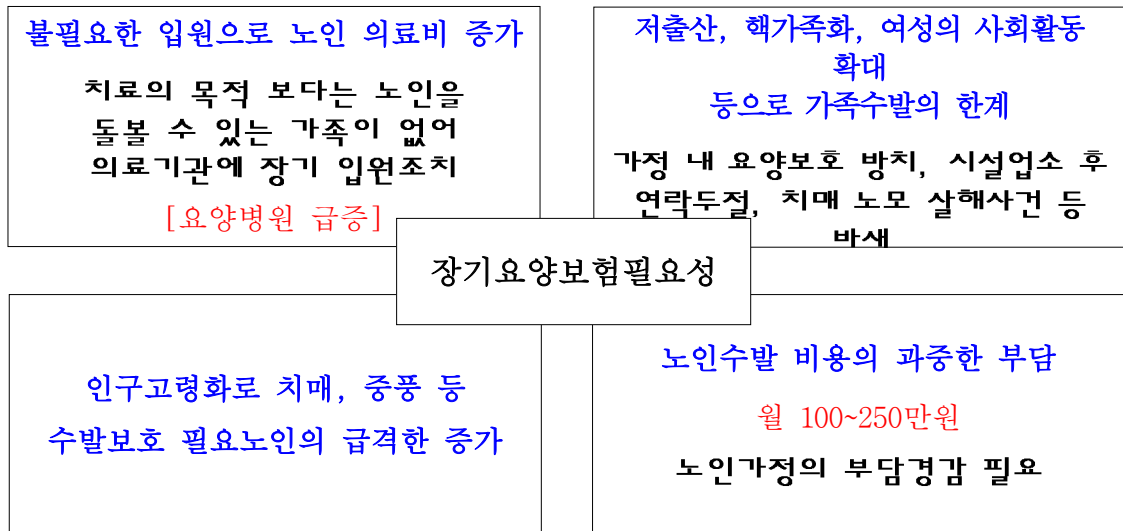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국민건강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의 필요성으로 인구의 고령화,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판정기준, 서비스 내용은 본 고의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본 연구의 목적인 교회의 노인복지증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2. 교회의 노인복지

교회 사회복지사업이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교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교회가 주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되 교회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며 일반사회복지사업의 방법들을 활용하므로 교회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일반사회복지사업을 보완 수용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존 스토틀, 1993). 사회봉사는 구제와 노력봉사를 의미하며, 사회행동이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개인적 생활만 경건하게 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판적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는 개혁적인 사회활동을 보다 많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함에 있어서 갖는 내재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종의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메시아적 공동체'로서 이 세상 안에서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조종남, 1989).

현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1차적인 사회복지 책임을 국가에 이양하였다 하더라도, 교회는 국가가 사회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국가가 실시하는 복지활동을 감시, 비판하며 국가가 실시하지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또는 보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적 사명인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영속적으로 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대의 사회문제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회봉사는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 개입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회사회복지사업은 구제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접 서비스, 즉 교육, 상담, 위기개입, 가족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성도들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봉사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위한 구조개발과 프로그램 평가, 나아가 개인, 집단 및 지역 사회의 복지를 위한 옹호활동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교회의 이웃과 지역사회로 그 범위가 연장되어져야 한다. 특히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제공될 때 그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현대의 사회적,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지역 공동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하여 교회는 지역사회복지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는 교회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사회사업에서 노인복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경은 잠언16:31절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노인 앞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노인들이 가족 및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와 지위를 확보하였듯이 고대중동지역이나 이스라엘에서도 노인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로 간주되어 존경과 권위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스라엘 노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근본으로서 그들의 지혜와 경험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년의 삶이 바탕이 된 장로의 직분은 매우 중요한 직위였으며 또한 노인들은 사회의 준 사법적 권위를 가진 자로, 위기에 처한 왕의 자문관으로(왕상12:6-8), 백발의 영적 지도자로(잠16:31), 경건과 신앙이 두터운 자(시34:11)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성경에서의 노인의 위치란 단순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인생노정의 복된 순례의 과정이며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이 주어진 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은 결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며 소외와 슬픔과 상실의 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노년의 삶은 시편 92편14절에서 밝힌 대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와 정직하심을 선포하리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외적인 삶은 쇠퇴해질지 모르나 내적인 삶은 성숙의 시기로서 완숙한 삶의 모습과 결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의 위치와 삶에 대하여 구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 말씀하심으로서 노년의 인생은 생물학적으로는 노쇠하여 가지만 신학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속사람의 생명이 약동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시기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의 노인은 하나님의 축복, 경건의 보상, 계명을 지킨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서 인식되어지기도 하였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5절에서 장수를 약속하였으며,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법들을 존경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은 지혜의 보고이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삶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노인들에게 특별한 존경을 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들의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며 따를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썬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명령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노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여 받은 권위이며, 노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또한 그들의 고귀한 삶의 경험을 나누어야 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서 보다 분명하게 표명되고 있다.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에베소서에서의 내용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욥12:12)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복지에 나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우며 당연한 일이다.

한국사회는 앞서도 문제제기가 된 것처럼 벌써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으며 얼마 있지 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반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의 분화, 도시화, 핵가족화 추세로 인해 노인들이 가정 안팎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인들은 사회적 지위의 격하, 역할상실, 경제적 빈곤, 건강약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소외와 고독감 등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교회의 사회복지적 역할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교회 내의 노인 신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지만 지역 사회의 노인 인구도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노인문제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 제공의 서비스보다는 민간 복지기관으로 노인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의중, 1991).

교회가 노인복지에 참여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볼 때 김미숙에 의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김미숙 외, 1999). 노인 대상의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인대학' 6.6%, '양로원' 2.0%, '노인정' 1.0%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양로원 방문' 32.7%, '경로잔치' 32.2%, '노력봉사' 20.2%, '무료식사제공' 15.4%로 어느 정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노인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실시여부 (%)	수혜인원 (명)	자원봉사자(명)		유급직원 (명)
				교회교인	일반인	
프로그램	노인정 운영	1.0	5.00	-	-	-
	노인대학 운영	6.6	83.48	18.94	57.75	12.75
	양로원 운영	2.0	18.48	5.25	50.00	3.67
	양로원 방문	32.7	44.86	13.52	28.13	1.00

불우노인 무료식사	15.4	92.66	14.56	13.00	2.75
경로잔치	32.2	102.24	19.83	55.53	20.50
취업 및 부업알선	1.5	3.50	-	1.00	1.00
노력봉사	20.2	27.73	9.15	59.17	2.00
도시락, 반찬배달	8.0	15.15	6.86	10.00	2.33
기타	7.6	19.83	7.00	1.50	0.6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그러나 교회가 노인복지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건강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것을 알 수 있다. 교회는 노인들을 두 부류 즉 건강한 노인과 연약한 모두에게 관심과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경륜과 유희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연약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나머지 생애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내세를 준비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되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보다는 연약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많은 예산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 교회라 할지라도 관심과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 III.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교회 노인복지 증진방안

#### 1.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 실태

##### 1) 파견센터 운영 현황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각 기관별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 현황을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기관별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 현황

	요양보호 대상자	요양보호사	기타 사항
기관 1	50여명	40여명	주야간보호서비스 준비 중
기관 2	20여명	20여명	도시락반찬 나누기 사업 병행
기관 3	50여명	40여명	발마사지 실시
기관 4	20여명	10여명	
기관 5	40여명	30여명	

금번 인터뷰의 대상자에 의해 나타난 운영 현황을 보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0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었으며 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는 20명에서 50명까지로 나타났다. 대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원인을 보면

첫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홍보가 미약했다.

둘째, 요양보호사파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수급자의 대부분이 3급 판정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는 1,2급 등급의 중증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보인다.

셋째, 심사가 엄격하여 등급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관계로 대상자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몇 가지 요인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 2)요양보호사 파견센터의 장점

### (1) 교회의 파견센터 운영 장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에 많은 문제점과 약점이 있으나 교회가 운영함으로 인한 장점 역시 많이 있다. 파견센터를 운영함으로 나타난 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요약한 내용들은 <표 3>과 같다.

교회가 센터를 운영하므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하여 나타난 내용들은 대단히 많았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전도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 기관별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 장점

교회의 파견센터 운영 장점	
기관 1	-장소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육적 및 영적까지 돌볼 수 있다. -성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교회가 혜택을 본다.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전도에 용이하다. -공신력이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다. -지역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된다.
기관 2	-관계전도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다. -재정적으로 힘이 된다. -교회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기관 3	-노인케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
기관 4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구체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교회가 좋은 호감을 얻을 수 있다.
기관 5	-불신자와 접촉점을 가질 수 있다. -믿지 않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척하고, 소규모 교회에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체로 적게는 수급자 10명 이상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가 증가할수록 교회의 어려운 재정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 외 교회의 장소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성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타났다.



### ① 전도의 접촉점

교회의 본연의 사역인 전도를 위한 접촉점을 가질 수 있으며 전도에 너무나 유익하다는데 모든 분들이 주장하였다. .

“가장 큰 장점은 육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일반 사람들은 육 밖에 돌보지 못하고 신앙인이, 교회가 할 경우에는 영혼까지 책임지니까 큰 장점이지요. 또한 사람이 많으니까 대상자 파악에도 용이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대상자 파악을 도울 수 있어서 좋고…… 왠지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처음부터 교회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분들과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도 교회를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노인 시설을 하면 전도의 접촉점은 되는데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과 연결하여 시행해 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신뢰도 있고 전도의 마음 문을 열기도 하고 내가 장례식을 책임져 준다고 했지요. 요양 보험제도가 전도의 연결점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하여 큰 힘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회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전도를 위한 접촉점을 가질 수 있어 전도에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자체가 전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 ② 재정적 혜택

재정적으로 교회가 혜택을 봄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척교회나 소규모 교회에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어느 정도 힘은 들지 모르나 재정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가 심방을 하고 어려운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정부가 돈을 주면서 돈 받고 하라고 하니 재정적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과 목회를 하는데 요 양보험제도가 개척교회에 그나마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생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를 하면 밥 먹고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활 보장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립은 할 수 있으니 재정적인 걱정은 없어지고요, 교회성장에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교회가 운영할 경우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교회가 재정적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는 목회자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인적, 공간적 활용

과건센터를 교회가 운영할 때 별도의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성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소적인 문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센터를 구별 없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곧 일자리 창출이지요. 교회에서 훈련이 잘 된 자들이 이 일에 나서면 참 좋습니다.”

전도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교회가 요양보호사 과건센터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갈수록 전도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힘이 들어지고 만나도 전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가정을 방문하려해도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봉쇄되는 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등급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접촉할 수 있으며,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주어졌다. 교회가 과건센터를 운영할 때 별도의 많은 공간을 준비하지 않고도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소 심방하고 가정들을 돌보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교회 내 성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다.

### 3) 요양보호사 과건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

교회가 요양보호사 과건센터를 운영함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과건센터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개척교회 또는 소규모교회가 과건센터를 운영함으로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각 기관별 요양보호사 과건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표 4> 기관별 과건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

	과건센터 운영의 문제점	과건센터 운영의 한계
기관 1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교회가 운영하는 본질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잃게 된다.	-자기 부담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자기부담이 어려워 장기요양 혜택을 포기함)
기관 2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분장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업무과중으로 개척교회의 한계를 느낀다. -미조직교회는 힘이 든다./ 인력이 따라와야 한다.
기관 3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내용들을 감당해야 한다. -센터가 난립되어 적정선 확보가 어렵다.	-소규모 운영으로 질적인 한계를 드러낼수 있다. -세무관련 전문성의 부족으로 행정기관과의 한계를 느낀다.
기관 4	-제도상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부추키어 센터를 옮기는 경향이 있다.	-정보가 약하여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경쟁력이 약해 큰 시설에 빼앗기거나 덤핑의 피해를 본다.
기관 5	-공식기관으로 요양보호사를 교인만 채용할 수 없다.	-불신자를 요양보호사로 채용했을 때 전도의 한계가 있다.

(1) 파견센터 운영의 문제점

참석자들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한계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나타난 지엽적인 문제나, 제도의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의 전문 인력 필요

요양보호 파견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정적인 업무로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소규모 교회에서 여유 인력이 많지 않는 가운데 공단 및 행정기관들을 상대로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두어 업무분장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문제점을 나타낸다.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교회는 대부분 빈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가복지를 하려면 개척교회보다는 100여명이 되는 중교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작은 교회는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채용하다 보니 교회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끌고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4대 보험 문제라든지, 이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근무 형태가 시급제로 되어 일일이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월급을 주면 간단하데 공단하고 문제라든지 현장에 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는 소규모 파견센터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는 별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재정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목회자가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목회와 파견센터를 병행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② 요양보호사 채용에 대한 문제점

요양보호사를 사역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하려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게 되며, 그렇다고 기독교를 믿는 자들만 요양보호사로 채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교회 일꾼을 요양보호사로 집중 양성할 경우 교회가 교회 본연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일할 일꾼이 없다는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가정선교사로 그분들을 세워주고 파송하므로 사역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용어 사용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가정 사역자로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이 사업을 운영함에 세상기업과 달리 이윤의 추구가 아닌 영혼을 구원하려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인이 요양보호사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일하는 자는 오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쉬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문제는 가능한 본 교회의 유휴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전도와 심방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나 일부 지적인 것처럼 교회 본연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 ③ 요양보호사 관리의 문제점

요양보호사 관리가 적지 않은 센터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센터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집으로 바로 가서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만 센터로 와서 보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요양보호사들 끼리 정보를 주고받음으로 대우가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가 쉬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생각하는 것이면 운영문제점으힘이 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결탁하여 함께 다른 파견센터로 옮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제는 요양보호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도 봉사라고 할 때는 잘했는데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데, 편한 곳을 찾아 가려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잘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센터로 직접 출근하지 않고 가정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요양보호대상자를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사무장이 2-3일에 한 번 이상 전화 안부를 묻고 이따금씩 팀장을 가정으로 보내어 둘러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리의 문제는 파견센터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일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개인의 애로사항까지 배려하는 관심들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견센터에서 요양보호대상자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는데 센터에서는 대상자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화방문이나 수시 방문 등을 통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 ④ 요양보호사 파견센터의 난립

정부가 시설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재가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한 측면과 신고제로 되어 있는 관계로 수요 추계수 보다 400% 이상 센터의 등록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자의 적정선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파견센터가 너무 많은 것이 실제 현상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너무 많은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적정선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은 파견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준우 서문진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설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므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시설 부족을 염려한 나머지 지나친 기관설치 기준완화로 인해 기관의 남설이 행해지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8년 9월 현재 등록된 기관의 수가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필요수요 추계수는 911개인 반면 실제 3,398개가 설치되어 확충률 373%를 보이고 있다(이준우 서문진회, 2009)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장우심은 재가시설의 관리자 20명으로부터 받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고된 업무에 비해 열악한 급여수준과 수혜자 및 보호자들의 요양보호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하여 빚어지는 갈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인력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투철한 직업정신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장우심, 2009).

## (2) 제도시행의 한계

교회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한계는 소규모로 인해 야기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다. 소규모로 운영하므로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 확보에 한계를 가지며, 경쟁력이 약하고, 질적 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교회가 파견센터를 운영함으로 전도할 목적을 가져도 불신자를 요양보호사로 채용할 때에는 불가능하며, 목회자 한 사람의 의지로만 될 수 없고 교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한계로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아까워서 요양보호를 받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는데 규정상 그런 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① 소규모 파견센터의 운영의 한계

소규모로 파견센터를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인프라를 확충의 미비와 홍보의 부족, 행정상의 난맥들의 한계에 직면한다.

“최소한으로 조직교회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조직교회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잖아요. 재정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시설도 없고, 목사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규모 형태니까 요양의 질적인 문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무관계 등에도 목사님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가 받는 분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판정을 받으면 센터를 자기들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분들 중심이 되다 보니 받는 분들의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이 안 됩니다. 홍보를 하기도 하나 공공연히 발골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사서 발골을 하기도 하나 불법입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운영하기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잘하고 요양보호사도 잘해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대상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요양사가 부추겨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

니다. 요양보호사와 계약을 할 때 조금이라도 잘해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규모로 파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파견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개척교회나 소규모의 교회만이 아닌 중·대형 교회에서도 적극 참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운영의 한계는 모두가 공감하는 아픔이다.

## ② 목회자 개인의 의지가 갖는 한계

목회자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없는 한계의 경우가 있다. 교회라는 조직에서 교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목회자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계를 갖는다.

“앞서 말했듯이 불신자를 요양보호사로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들이 가정으로 갔을 때 전도를 할 일이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이 일은 목사님 혼자 결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인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 재가복지센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보았을 때 돈을 바라보고 사회사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일은 하지 않고 왜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하느냐 그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의 의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에 목회자의 뜻대로만 운영되는 기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들의 협조와 동의를 얻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제도상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

교회가 파견센터를 운영함이 재정적 문제만은 아님에도 저소득자나 차상위계층의 수급자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을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제도상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 욕구는 있으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점이다.

“좋은 제도이지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가 어려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돌보는 어르신 가운데는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부담금의 50%도 부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부담금 6만 원정도(3급 자기 부담금인 12만원 정도의 50%)가 어려워 장기요양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우·서문진희는 본인부담금 과중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외가 서비스 이용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는데 재가요양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게 되어있으며 식재료비, 이·비용비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100분의 15라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서비스 욕구는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준우·서문진희, 2009). 교회가 이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해 주고 싶어도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 (3) 교회의 파견센터 운영 약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정부가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많은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터뷰를 통하여 나타난 약점은 <표 5>와 같다.

<표 5> 기관별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 약점

교회의 파견센터 운영 약점	
기관 1	-재정 사용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할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교회가 수익 사업을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기관 2	-교회 내에 시설을 둠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기관 3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관 4	-물질이 앞설 때 덕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더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불만적인 요소가 된다.
기관 5	-정직하지 못한 회계운영으로 잡음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불신가정에서 교회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곧 수익사업이 된다는 뜻으로 물질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무엇보다 재정에 투명해야 할 교회에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물질에 대한 사소한 문제가 일반 기업에서는 묻혀갈 사항일지라도 교회라는 환경에서 잡음이 될 수 있고 비판의 소지가 되어 도리어 복음 전도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교회에서 파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예배는 일주일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파견센터는 매일 사용함으로써 본래 예배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장소가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일부 교인들의 반감을 가져오는 경우와 교회에서 운영함으로써 타종교 사람들의 기피현상이 되는 경우, 막연히 '교회이기 때문에'라는 기대가 도리어 불만적인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① 재정의 투명성

교회가 수익사업을 함으로 문제의 소지를 가지는 약점이 있다. 교회에 갖는 기대치가 재정 수입과 결부될 때 신앙의 순수성 보다 금전적 이해에 민감해지므로 말썽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돈 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상자가 편하고 돈 되는 쪽으로 갈려고 할 때 이럴 때 교회가 할 때에는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재정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만 교인들과 공감대를 잘 형성하면 바람직하겠지요.”

“사업이다 보니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요양보호사들이 안 믿는 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때에는 목사님들이 욕을 엄청 듣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급제가 되다 보니 어디가 많이 주고 어디가 적게 준다고 말을 많아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무조건 드려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요양보호사들이 서로간의 정보를 주고 받다보니 어디가 어떠하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 대하여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목사님의 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사업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사업이라 생각하고 돈벌이에 치중해 간다면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 욕 먹이는 일이 됩니다.”

“정직하게 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대고 봉사라는 이름을 핑계로 대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다. 교회 본연의 구령사업이 선 목적이라면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초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의 투명성을 나타내야 할 것이며,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저히 개인 위주로 운영함으로 교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② 교회시설을 사용함에 대한 불편함

교회 내에 시설을 뚝으로 오는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교회는 주일에 한번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파견센터는 매일 교회시설을 사용해야 하므로 전체 교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간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약점이 있다.

“결국 거꾸로 하기에 약점이라는 것이지요. 운영하는데 장점도 있지만 교회 안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약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와 분리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매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반감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시설의 문제는 사전에 교회의 성도들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시작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 교회의 시설들에 대한 효율가치를 높인다는 의미에서도 시설사용이 다소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도리어 강점이 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 ③ 종교적 이질감과 기대감

교회에서 센터를 운영함으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기피현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막연히 '교회이기 때문에'라는 기대가 도리어 불만적인 요소가 된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운영한



다는 한 가지만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회가 더 잘 해주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도리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안 믿는 가정에 가면요 교회가자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교회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할 때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도리어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는 교회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 사회집단이 회계운영을 하는 경우보다 교회이기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 사용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할 때 교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는 도리어 교회가 분명한 회계처리와 도덕성을 앞세울 때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아울러 파견센터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로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가 운영함으로 짐을 져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점에 유의를 해야 할 것이다.

## 2.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의 발전방안

### 1) 교회의 역할과 파견센터 운영 지향점

교회가 파견센터를 운영함에 결국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견센터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마음가짐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해 각 기관별 제시한 의견들은 <표 6>과 같다.

<표 6> 교회의 역할과 지향점

	교회의 역할	파견센터 운영 지향점
기관 1	-지역을 가꾸고 지역에 유익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 또는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를 물질로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익을 지역 소외계층에 환원함으로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패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 2	-복지를 하지 않으면 욕 먹는다.	-구제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선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관 3	-섬김을 통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어야 한다.	-사업보다 복음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관 4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익집단이 아닌 섬기는 모습으로 랑을 실천하는 곳이어야 한다.
기관 5	-지역 주민들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으로 물질보다 봉사정신이 앞서야 한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 되어 지역을 섬기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1)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지역을 섬기는 자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교회가 지역교회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역 목회를 하려면 지역 주민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당사자와 가족을 만나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유 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아직은 소극적 입니다. 지역을 가꾸고 지역의 유익한 단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역할로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섬기신 모습들을 본받는 것이 교회가 아납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저소득 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어르신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회가 복지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욕먹습니다. 건물만 크게 지었지 교회

가 하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sup>2)</sup>가 적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큰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적으로 내어 놓은 것이 없잖아요 당장 복지시설을 내어 놓는 것이 없잖아요. 안에서는 일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해요.”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웃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일을 시행하므로 모든 좋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역에 좋은 소문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작은 일인 것 같으나 노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일만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가 생각됩니다. 돈만 생각해서는 이 일을 할수 없습니다. 전도라는 구령사업을 생각할 때 섬기고 봉사로 교회가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구령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하겠지만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사랑과 섬김을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의 시각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교회의 파견센터 운영 지향점

교회가 파견센터를 통하여 지향할 점에 대해서는 섬기는 패턴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요양사가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요양의 차원으로 한정되지만 보다 섬기는 자세로 접근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발마사지를 실시한다든지, 어려운 가정에 도시락 반찬을 제공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개념 자체를 봉사라는 의미보다 선교의 차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봉사, 구제라는 말은 교회 내에서 한정하고 같은 일이라도 교회 밖에서는 결국 전도와 선교의 개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수적 사업이라는 인식이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는 의견과 소득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 칭찬 듣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전도와 구제의 용어 자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제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구제는 어느 정도 일부적이라고 생각 했거든요. 그러나 구제를 크게 보자는 것이지요. 구제를 선교로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제고 교회 밖에서는 선교로 보자는 것이지요. 모두를 구제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는 구제를 못했죠.”

“중요한 것은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제를 하고 복지를 하는 것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승리요 축복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 복지가 바로 선교요, 전도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왜 퍼주느냐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작업으로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정에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기업을 운영합니다. 지역 생산물을 직거래하여 남는 수익금은 구제하는데 연계되고 있지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들과 연계해

2) 교회의 실명을 거론하였으나 익명으로 처리하였음.

서 복지를 한다면 더 풍성하고 체계적인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볼 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봉사요 섬김이지만 교회가 교회 밖에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봉사라고만 국한할 수 없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활동이 복음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 개념을 봉사라는 의미보다 선교의 차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봉사, 구제라는 말은 교회 내에서 한정하고 같은 일이라도 교회 밖에서는 전도와 선교의 개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수적 사업이다. 결국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교회가 전도라고 할 때는 적극적이면서 구제라는 말끔회가지역사회에 대단히 소극적이다. 교회 내에서는 어려운자에게 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지라도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전도 및 선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 세상 속으로의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잠시 운영하다가 수익이 적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중도에 포기되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 하며, 소득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 칭찬 듣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요양보호사 파견센터의 발전방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등록된 수가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초과 설치되어 있다(이준우·서문진희, 2009).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경제적 수익성을 고려할 때 과다 경쟁 또는 서비스 질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교회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논리 보다는 영혼구원의 차원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많이 그리고 더 가까이 연약한 노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방안에 대해 기관별로 의견들을 제시한 내용이 <표 7>과 같다.

<표 7> 기관별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발전방안

발 전 방 안	
기관 1	-스스로 등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 등급을 받도록 도와주고 본인 부 담금에 대해서는 후원자를 연결해 주어 장기요양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관 2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교회가 복지를 하는 것이 승리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복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기관 3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높여야 한다. -전도대상의 우선순위는 수급자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다. -수급자를 섬기는 대상으로, 가족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기관 4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과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기관 5	-4대 보험 등을 제대로 실시함으로 요양보호사를 잘 관리해야 한다. -금전보다 섬기는 자세의 요양보호사가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교회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야 한다.

교회가 요양보호사 파견제도를 실시함에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먼저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관심 그리고 교육을 꼽았다. 이는 파견센터의 특성상 서비스를 실시하는 자가 요양보호사일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직접 가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가지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급자를 발굴하고 후원자와 연결하는 일과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1)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교육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관심 그리고 교육에 힘써야 한다. 요양대상자를 일선에서 만나는 자는 요양보호사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고, 평가되어 진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육하느냐가 중요하며 그들에 대한 처우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잘해주어야 합니다. 센터하고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두 군데라고 봅니다. 하나는 당연히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환자잖아요. 등급이 나왔다는 자체는 본인이 움직일 수 없으니깐. 그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이 무섭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에게 잘 해주 다 보면 그들이 복음적으로 일을 하고 환자도 데리고 옵니다.”

“실제로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직접 대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의 질적인 면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직해야 합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교회에서는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이구요. 우리 교회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성과급)을 주거든요. 요양보호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센터

를 만드는 방법이지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구비할 서류라든지 어르신을 만나는 일이라든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와의 결탁으로 서비스가 없었음에도 서비스를 한 것처럼 꾸민다는 것입니다. 공단, 세무서 등을 상대해야 되고요…….”

장우심은 장기요양인력의 질이 바로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을 생각할 때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급여를 요구하며, 현행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8시간씩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매 1년마다 정기적인 보수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장우심, 2009).

## (2) 등급자 발굴과 후원자 연결

등급자를 발굴하고 후원자를 연결하는 일이 파견센터의 발전과 연결된다. 소득의 증대를 위한 등급자 발굴의 의미가 아니라 재정 형편의 어려움이나 몰라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돌보는 일이 결국 파견센터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며 나아가서 주야간 보호와 단기보호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차상위 계층의 50% 이상이 노인입니다. 국가가 못 돕는 차상위 계층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관심을 가질 때에 결국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50% 이상이 노인이다 보니까 그들 중에 결국 대상자가 생기고 우리가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에 관심을 가지다보면 결국 그들이 대상자로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등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 등급 판정을 받도록 도와주고 본인 부담에 대해서는 후원자를 연결하여 장기요양보호를 받도록 도와주면 결국 교회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고 재생산으로 나 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르신을 한분의 대상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보살피면 그들은 압니다. 중심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노인들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힘든 분이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연결하는지 연락이 와서 물어보면 우리 센터에서 요양 받으시는 분이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처럼 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파견센터에서 머물러서는 안되지요. 저희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데 앞으로 교회가 단기보호센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인터뷰 참석자나 장우심의 논거에서 보듯이 파견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견센터의 발전방안은 곧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장우심에 따를 때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열악한 급여수준을 지적하고 있으며, 신규 요양보호사들은 스스로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의 결여와 기존의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들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의 요양보호 기술에 대한 숙련정도와 전문성, 그리고 투철한 직업정신의 부족을 나타낸다(장우심, 2009)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고, 인성 및 소양교육 등을 통해 투철한 직업정신을 함양할 뿐 아니라 가족처럼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요양보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아울러 교회 내 후원자

를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요양보호 대상자들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으로 등급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 간다면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것이다.

## IV. 맺으며

본 연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노인복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전문가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 지역에서 직접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5명의 목사님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은 교회가 노인복지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대적 기회라는 의견들을 피력하였다. 물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대규모 사업도 필요하겠으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국가나 사회가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재가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국 방문요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가 장기요양기관 수요 추계수에 비해 실제 등록기관수가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초과 설치 되어 있다. 2008년 9월 현재 방문요양의 경우 필요수요 추계수는 911개인 반면 실제 3천 398개가 설치되었고, 방문 목욕의 경우에도 582개의 수요에 비해 2천 222개의 기관이 설치되었다(이준우·서문진희, 2009).

경제적 수익성을 볼 때에는 수요 추계수에 비해 초과 설치로 인하여 교회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 모르나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보다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적 측면과 아울러 복음전도적 측면에서 볼 때 분명 교회가 나서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이들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 실태로 볼 때

①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3급의 판정을 받은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수요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설치된 방문요양센터의 수에 기인한 것과 제도 실시가 1여년 밖에 되지 않아 홍보와 인식의 부족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②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 요양보호사의 관리가 잘 되어야 하며, 소규모로 운영할지라도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교회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어지는 약점은 재정 사용에 있어서 분명해야 하며, 사소한 문제로 파견센터가 아닌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교회의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 참여방안으로 볼 때

① 교회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함으로써의 강점은 무엇보다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어서 전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과 재정적으로 교회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② 교회가 복지에 참여하는 것을 구제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선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의 발전방안으로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며, 그리고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교회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승리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로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곧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교회가 복음사업이 우선이고 이 일에 진력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노인복지가 가장 각광 받는 전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칭찬 듣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로서만이 아닌 그 자체가 전도요 선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하여 나타난 내용 가운데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운영함으로 나타난 장점으로 모든 참여자가 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지고, 교회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희생할 때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교회가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교회가 건강한 노인들을 위주로 한 복지사업을 실천해 왔다. 이제 교회의 관심을 힘없고 연약한 노인들에게로 돌려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언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가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때에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많아져 되겠으며, 그중에서도 힘없고 연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진다면 교회가 크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재정이 없어도 도리어 수익을 얻으며 자립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교회는 교회 내 성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석 삼조의 복지사업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는 관심과 사랑이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구비되어도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이다. 어느 기관이 사랑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가장 적합한 사업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이 복지사업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시대적 기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모든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또 교회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든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진영,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2.
-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1998
- 김기원,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도서출판 예안, 1995.
- 김미숙 외, “종교계의 사회복지 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예원기획, 1999
- 배재군,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경기도: 도서출판 생명샘, 2008.
- 알빈 린그렌, 「교회개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엄기욱,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구상배경 및 논의과정」, 한국노년학연구, 한국노년학연구회, 1997.
- 유의중,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복지선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1.
-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경기도: 공동체, 2007.
- 이준우 서문진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노년학 29호, 2009
- 장우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9 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 조종남, 「목회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존 스토티,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통계청, 2008 고령자 통계, 2008.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 허정무, 「노인교육이론과 실천방법론」, 양서원, 2002.